

서천특화시장 점포당 1200만 원 지원…임시시장 4월 개장

충남도, 화재피해 지원계획 발표
1년 6개월 내 재건축 완료
재고 물품 손실·영업 피해 성금 활용

충남도가 대형화재로 터전을 잃은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에게 700만 원의 현금을 추가로 특별 지원한다.

상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임시 상설시장은 오는 4~5월 광어·도미축제 전문을 열고, 특화시장 재건축은 1년 6개월 내 초고속으로 복구한다.

충남도지사는 1월 30일 도청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및 피해 상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 외에 2차 생활안정 자금 및 영업 피해 등 손실에 대한 특별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1월 24~25일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257개 점포(전체 292개 중 공실 31개·미운영 4개 등 35개 점포 제외)를 대상으로 재해구호비와 생활 안정지원금 500만 원 씩을 우선 지원했다.

여기에 더해 설 명절 전까지 점포당 700만 원 씩 2차 생활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추가 지원은 도지사 재량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급을 결정했다.

재고 물품 손실과 영업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성금을 활용, 업종과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이를 위해 도는 금융기관과 기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임시 상설시장은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4월 초 광어·도미축제 전까지 조성을 마친다.

도는 임시시장 조성을 완료하면, 도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쳐 상인들이 조속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봄을 부르는 냉이 수확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리에서 농민들이 겨울철 고소득 작목인 냉이를 수확하고 있다. 갓바람을 맞고 자란 태안산 냉이는 쌉쌀한 맛과 진한 향이 일품으로, 단백질과 비타민 A·C 등이 풍부해 산지 수집상과 농협공판장을 통해 서울 가락시장 등에서 인기리에 팔린다.

/태안군 제공

특화시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재건축은 설계·시공을 터키 방식으로 추진, 1년 6개월 이내 완료 한다.

이를 위해 도는 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이 중 절반은 국비와 공제보험이 활용된다.

대구 서문시장의 경우 화재 이후 임시시장 설치에만 9개월이 소요되고, 본 건물은 7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는 셈이다.

도는 이밖에 소상공인재해특례보증을 통해 점포당 최대 1억원 씩 총 200억 원을 무이자·무담보·무수수료로

지원 중이다.

지방세와 체납 처분은 유예했으며, 도시가스요금은 면제 조치를 완료하고, 전기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면제를 요청했다.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관련 성금 현황 ('24.2.1기준)

▲IBK기업은행 3억원 ▲NH농협은행 1억원 ▲(주)한국중부발전 신서천발전본부 3000만원 ▲군산시청 3100만원 ▲(주)일아이스콘 2000만원 ▲방송인 이상용 1000만원 ▲(주)신록태양광 1000만원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1000만원 ▲(주)토비스 1000만원 ▲농협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모금계좌 안내(3개 기관)

구 분	전국자해구호협회	사랑의열매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모금방법	계좌 기부	계좌 기부	계좌 기부
모금계좌	국민은행 054901-04-200464 (전국자해구호협회)	농협 474-01-003445 (충남도공동모금회)	농협 301-0171-0424-51 (대한적십자사)
문의처	1544-9595	070-8897-0511	041-640-4821-3 02-3705-3741-4

지부 800만원 ▲서울특별시 1억원 ▲원 ▲충청남도 의정회 200만원 ▲하나새마을금고 1억원 ▲중랑구시설관리공단 100만원 ▲경상북도 3000만원 ▲대전광역시 3000만원 ▲충청북도 1000만원

만 6694m², 12만평)를 유치함에 따라 앞으로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중추적·핵심적 역할 수행에 마침표를 찍은 바 있다.

/산업입지과 041-635-3446

알림 다음 신문은 2월 25일자로 발행됩니다.
도민 여러분, 편안하고 안전한 설명절 보내세요.

/도정신문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본궤도…2027년부터 입주

정부 신단계회 승인 보상절차 착수
첨단국방산업 관련 기업·기관 입주

국내 최초 전력지원체계(비무기) 중심의 ‘충남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및 죽본리 일원 87만 177m²

(26만평) 규모의 산업단지계획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2022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이후 2년 만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국토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 공사(LH) 등과 적극 협력해 온 것이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산단 조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총 1600억원의 사업비를 투

입하며, 올해부터 보상절차에 들어간다.

도는 국방국가산업단지 내에 국방 관련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국방 벤처센터를 설립하고,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27년부터 미래 첨단 국방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산단 조성에 따른 경제적효과는 2000 억여 원의 생산유발 및 1400여 명의 고

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논산을 비롯해 충남 남부권은 육·해·공군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 등 국방 관련 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등이 밀집돼 있어 최고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39

지면안내

설 연휴 종합대책	3면
충남의 종가	8면
설 예절	9면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	12면
설 연휴 가볼만한 곳	16면

도정 비전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정 현안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민선8기충남도정

저출산 TF 가동 “결혼·임신·출산 실질 대책 마련”

행정부지사 청년 공무원 간담회
저출산 극복 주요정책 발표 예정

충남도가 저출산(생)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기존 저출산 정책 중 혼인·출산·이민·입양 제도 개선 등 국가가 해야 할 정책은 국가에 건의하고, 도가 할 부분은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저출산 티에프(TF)를 가동, 1월 25일 청년 공무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청년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기영 행정부지사 주재로 저출산 극복 정책 마련을 위한 청년 공무원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는 충남 저출산 정책 안내, 저출산 극복 정책 논의 및 제안 등의 순으로 이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공무원들은 결혼, 출산, 양육, 주거, 환경, 교육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

했다.

도는 이날 수렴한 의견과 제안을 검토해 도의 저출산 극복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도내·외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해 대한 민국 저출산 극복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도는 올해 ‘저출산 극복’을 도정 핵심과제로 설정했다”라면서 “도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민관이 머리를 맞대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에 아이를 낳

고 키우기 좋은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2026년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준비 중이며, 주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보육정책과 041-635-2614

경찰병원 분원 ‘2028년 개원’ 발판 놨다

경찰복지법 수정안 국회 통과
아산 설립·신속 예타 근거 마련

충남도가 2022년 아산으로 유치한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복지법)’ 개정법률안(대안)이 1일 제412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대안은 당초 경찰복지법 개정안 ‘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에 담겼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내용을 제외한 것이다.

대안 주요 내용은 ▲경찰병원 건설 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 단축 이행 ▲사전용역 등 간소화 ▲수도권 이외 지역에 경찰병원 설립 등이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도는 이달 중 신속 예타 신청, 다음 달 대상 사업 선정, 4월 중 예타 진행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은 “앞으로 신속 예타 대상 선정 및 병상 규모 확정 등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2028년 개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병원 분원은 아산시 초사동 경찰 인재개발원 유류지 8만 1118㎡에 상급 종합병원급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병원 규모는 550병상으로, 6개 센터와 23개 진료과, 1000여 명의 의료진이 상주한다.

/공공기관유치과 041-635-2942



희망 나눔 캠페인 모금액 역대 최대

충남도는 1일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을 열고, 옮겨울 사랑의 온도 107°C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연말연시 두 달간 진행했으며, 캠페인 결과, 도내 모금액은 215억 1400만 원(1월 31일 기준)으로 목표 금액 200억 3000만 원을 107.4% 달성했다. 희망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보육정책과 041-635-4247

2026년까지 청년정책에 8923억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분야
청년농 육성, 주거비 부담 경감

충남도가 올해부터 3년간 ‘청년이 살기 좋은 충남’ 조성에 8923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1월 2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먼저 ▲인재 성장 ▲정책 확대 ▲참여 증진을 목표로 3년간 89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4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31개 부서 소관 총 123개 과제로 구성했으며,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분야에 3597억원을 투입 한다.

이는 전년 1758억 1000만 원 대비 104.5%(1838만 9000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예산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일자리 분야이며, 단계적인 청년 농업인 육성과 취·창업 지원에 197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 분야는 충남형 도시·농촌 리브 투게더, 농촌보금자리조성 등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778억 원을 지원한다.

복지 분야는 고립은둔, 자립준비 등 취약 유형별 맞춤형 지원에 190억 원 등 총 703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모든 도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을 위촉하도록 한 ‘청년기본법’ 개정(2023년 9월 22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년참여 위원회 확대안을 심의했다.

/청년정책관 041-635-3982

전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5등급 차량 단속
공공 차량 2부제

겨울철 들어 대기상태가 악화하면서 1월 31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이는 1월 30일 밤 12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mu\text{g}/\text{m}^3$ 를 초과하고, 31일 일평균 농도가 $50\mu\text{g}/\text{m}^3$ 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비상저감조치 기간 도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107

개소와 비산먼지 발생 건설 공사장에 대해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및 효율 개선 등 의 저감 조치를 시행했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에 대한 운행단속을 했으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공공부문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도내 행정·공공 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공공 대기배출사업장의 가동 시간 단축·조정과 관급 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을 했다.

/대기환경과 041-635-4422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단계	발령기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① 당일 0~16시 평균 $50\mu\text{g}/\text{m}^3$ 초과 및 내일 $50\mu\text{g}/\text{m}^3$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mu\text{g}/\text{m}^3$ 초과 예상 ③ 내일 $75\mu\text{g}/\text{m}^3$ 초과(매우 나쁨) 예상	
주의	$15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75\mu\text{g}/\text{m}^3$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150\mu\text{g}/\text{m}^3$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200\mu\text{g}/\text{m}^3$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미세먼지 줄이는 3가지 실천 수칙

걷고 줄이고 끄고!
올겨울도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요

- ① 가까운 거리는 걷고
- ② 폐기물 소각량 줄이고
- ③ 낭비되는 대기전력은 끄고



“설 명절 편안하고 안전하게” 연휴 응급실 정상 운영

경제·재난·복지·의료·환경 5개 분야
종합 상황실, 120충남콜센터 운영
농축수산물 할인·성수품 물가관리

충남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도민과 고향 방문객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종합대책으로는 경제·재난·복지·의료·환경 등 5개 분야 14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도는 설 연휴 기간인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연휴 기간 각종 불편 신고는 ‘120충남콜센터’를 통해 받는다.

경제 분야 대책으로는 먼저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명절 성수품 20개 품목의 가격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지도·점검 등 현장 활동을 강화한다.

설 명절에 발맞춰 ‘우리 수산물 팔아주기’ 운동으로 수산물 구입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줄 예정이며, ‘농사랑’ 쇼핑몰과 직거래 장터 등을 활용해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인 농·축·수산물 성수품 20개 품목 최대 840억 원 할인쿠폰 지원 방안도 도민에게 흥보 할 계획이다.

업체당 1억 원 이내 총 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경영 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재해·재난 분야는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전파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비상근무조를 편성하고 도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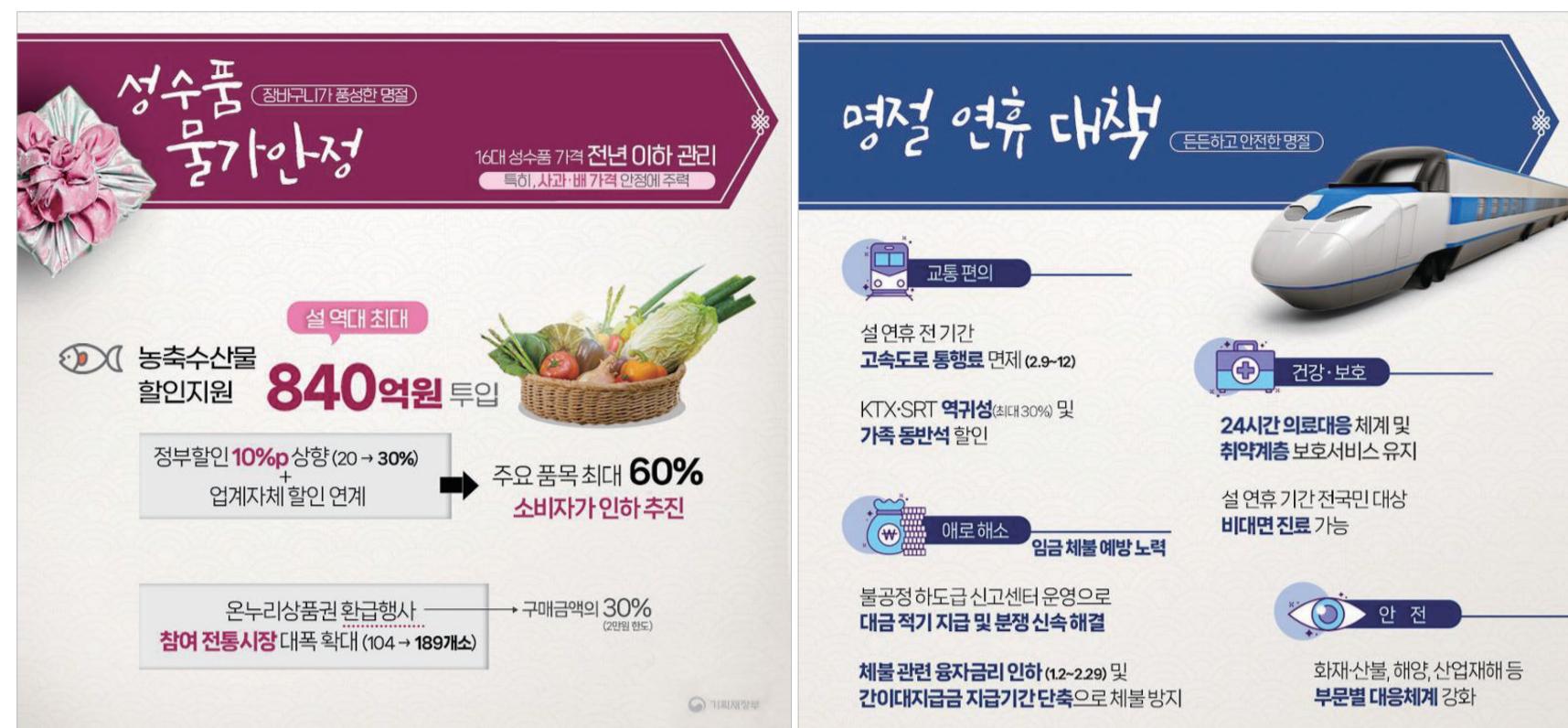
도로 일제 정비를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전기·가스·난방·상하수도·교통 안전 등 도민 생활 밀접 부문을 특별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며, 다음달 8일부터 13일까지는 화재 대비 특별 경계근무도 실시한다.

아울러 이용소방대, 상인회 등을 중심으로 도내 전통시장 순찰체계를 강화하고 소방서별 기동 순찰을 하는 등 화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중형 이상 전통시장 23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긴급 합동 화재 안전조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나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운기 나눔 범도민 캠페인을 펼쳐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등 각종 소외계층에 대한 명절 지원 대책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 주관 미등록 결로당 전수조사 등 화재 안전 점검과 동절기 한파 피해를 막기 위한 난방비 등도 지원한다.



성수품 물가안정 (장바구니가 풍성한 명절)

16대 성수품 가격 전년 이하 관리
특화, 사과·배 가격 안정에 주력

설 연휴 대책 (든든하고 안전한 명절)

교통 편의
설 연휴 전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9~12)

건강·보호
KTX-SRT 역 귀성(최대 30%) 및 가족 동반석 할인
24시간 의료대응 체계 및 취약계층 보호서비스 유지
설 연휴 기간 전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가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 대폭 확대 (104 → 189개소)

구매금액의 30% (만원 한도)

애로해소
임금 체불 예방 노력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대금 적기 지급 및 분쟁 신속 해결
체불 관련 융자금리 인하 (12~22%) 및 간이 대지급금 자급기간 단축으로 체불 방지

안전
화재·산불, 해양·산업재해 등 부문별 대응체계 강화

설 연휴기간 문 여는 종합병원 현황

연번	구군	구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2. 9.(토)~12.(화)	비고
1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안서동,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041-550-7114		
2	천안시 동남구	상급종합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봉명동)	041-570-2114		2월 12일 외래진료(08:00~17:00)
3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질로 537 (삼룡동)	041-570-7200		
4	천안시 서북구		의료법인영서의료재단천안충무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다가말3길 8 (상용동)	041-570-7555		응급실 별도 운영
5	공주시		충청남도공주의료원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77 (웅진동)	041-962-1111		
6	보령시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보령아산병원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136 (죽정동)	041-930-5114		2월 9, 12일 내과 외래진료(09:00~15:30)
7	아산시		아산충무병원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381 (모종동)	041-536-6666		2월 12일 외래진료(08:30~17:30)
8	서산시	종합병원	서산중앙병원	충청남도 서산시 수석산업로 5 (수석동)	041-661-1000		
9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석림동)	041-689-7000		
10	논산시		의료법인백제병원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4 (취암동)	041-733-2191		2월 9일 외래진료(08:30~13:00)
11	당진시		당진종합병원	충청남도 당진시 반촌로 5-15 (시곡동)	041-357-0100		
12	홍성군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041-630-6251		
13	예산군		의료법인의료재단예산종합병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94	041-330-4000		

* 자세한 의료기관 현황은 충청남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응급 및 방역 분야는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해 도와 시군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며, 연휴 기간 비상 진료 기관·약국도 운영 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24시간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집단환자 발생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 분야는 환경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생활민원을 접수·처리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터미널과 전통시장, 주요 관광지 등의 공중화장실 청결 상태도 집중 점검한다.

/자치행정과 041-635-3593

2024.1.31. 기준

설 연휴 감염병·식중독 대응 ‘총력’

18일까지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및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대응체계는 1월 19일부터 2월 18일 까지이다.

연구원은 도 감염병관리과, 시군 보건소, 도내 의료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으며, 감염병 환자 및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진단을 통

해 지역 내 화산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엠포스 등 해외유입신종감염병 및 급성 설사 질환인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급성 호흡기감염병 등 법정감염병 대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와 함께 살모넬라균, 병원성대장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 집단 식중독 발생 시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21명의 대응요원을 구성해 누구없는 검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041-635-6821



전통시장 (전국 120개)
현장 환급 행사도
잊지마세요! ('24.2.3~2.8.)

농축산물 할인 지원의 자세한 정보 확인은
sale.foodnuri.go.kr

농림축산식품부

01 30% 자동 할인 오프라인 마트* (한도 2만 원)
*대형·중소형 마트, 친환경 매장, 토론플루 카페, 지역 하나로마트

계산 시 30% 자동 할인
참여 업체 추가 할인 받으면 최대 60% 할인!



02 30% 할인
온라인 쇼핑몰 (한도 2만 원)

할인 지원 쿠폰 30% 다운로드
상품 결제 시 쿠폰 선택 후 결제



03 30% 할인
전통시장 배달앱·온라인몰 (한도 3만 원)

할인 지원 쿠폰 30% 다운로드
상품 결제 시 쿠폰 선택 후 결제



도, 현안사업 해결 '잰걸음'

충남도가 정부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요청하는가 하면 도내 국립 의과대학 신설 반영을 촉구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건의에 이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에 앞서 도내 대학 등과 협약 체결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서산·태안 가로림만 일원에 2028년까지 1236억 원을 투입, 해양 생태계 보전·이용 및 지역 상생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정책과 041-635-4761

'국립 의과대학 설립' 촉구

충남도가 열악한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도내 국립의대 신설'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1월 30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 최대 취약지인 도내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차별적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면서 "도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1.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도는 지역 의료환경 개선 및 부족한 의료

자원 확보를 위해 2개 사항을 건의했다.

구체적인 건의 사항은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국립대 의대가 없는 충청남도 내 국립대 의대 설립 반드시 포함 ▲확충된 의료인력의 지방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마련이다.

/보건정책과 041-635-2642

향, 자문 등을 세세히 검토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번 연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자치행정과 041-635-3597

교육발전특구 '충남 지정' 해낸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신청 및 지정이 임박한 가운데, 충남도가 공모 통과를 위해 도교육청, 아산시, 도내 대학과 손을 맞잡았다.

도는 2월 1일 도청 상황실에서 도교육청, 아산시, 호서대, 선문대, 순천향대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안정적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라 도를 비롯한 6개 기관과 대학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관련 ▲운영기획서 마련 ▲교육 발전 전략 수립 ▲지역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을 상호 협력한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041-635-3222

충남도 방사능 안전현황

[2024. 1. 16. ~ 1. 31.]

안전

- 해수** ► 도내 해역 불검출
- 해수욕장** ► 도내 해수욕장 불검출
- 수산물** ► 도내 생산 수산물 23건 적합
- 유통식품 등** ► 학교급식 식재료 10건 적합

(안전) 50 미하(Bq/kg) (관심) 50초과~100 미하(Bq/kg) (위험) 100 초과(Bq/kg)

지구를 위한 10가지 습관 오늘 실천 완료

Bye Bye Plastic



1 장 볼 때
장바구니 이용하기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2 신선식품 주문할 땐
다회용 보링백
사용하기



3 배달 주문할 때
안 쓰는 플라스틱
받지 않기



4 물티슈,
플라스틱 뱀대
사용 줄이기



5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6 포장이 많은 제품
사지 않기



7 포장 없는
리필 가능한 이용하기



8 내가 쓴 제품은
분리배출까지
책임지기

도정게시판

디지털 교육 우수강사 공개 모집

충남도 인재개발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도민과 공직자의 업무 역량을 높일 디지털 전문 강사를 상시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과정은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이해 ▲블록코딩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도전 ▲챗지피티(ChatGPT)와 인공지능(AI) 도구 활용하기 ▲반복 업무의 자동화 활용하기 등 5가지다.

도 인재개발원은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 등을 평가해 우수강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제출 서류와 신청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www.chungnam.go.kr), 도 인재개발원 누리집(www.chungnam.go.kr/civileducationMain.do)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운영과에 문의하면 된다.

도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도민과 공직자가 최신 정보기술(IT) 경향을 업무에 반영하고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시 공개 모집을 통해 잠재력과 혁신 능력을 갖춘 우수한 강사를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인재개발원 041-635-6559



한국유교문화 발전 협력의 뜻 다짐

한국유교문화진흥원(한유진)은 1월 24일 논암서원, 죽림서원과 '유교문화 진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유교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 ▲전통문화와 인성교육 연수 ▲유교문화 진흥 및 청달을 위한 행사 등에 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데 합의했으며, 아울러 기타 세 기관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정재근 원장은 "협약을 계기로 한유진과 두 서원은 한국유교문화 발전을 주도해 나가기 위하여 적극 교류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041-981-9941

충남권역 6개 전문대학 협력 워크숍

충남도립대학교는 '충남권 전문대학 공유·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협력 워크숍에는 충남도립대를 비롯한 백석문화대, 신성대, 아주자동차대, 연암대, 혜전대 등이 참여했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별 혁신사례 발표를 통한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 충남라이즈(RISE) 체계 도입 관련 정보 제공 및 대학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진됐다.

특히 충남권 전문대학 공존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상생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김용찬 총장은 "충남 고등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충남권 전문대학이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라며 "6개 전문대학이 상호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속해서 개발되기를 희망하며, 충남도립대학교가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도립대 041-635-6683

내포행정동우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충청남도내포행정동우회는 1월 3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고 향후 지자체의 각종 공모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포행정동우회는 나라·지역사랑운동 전개, 대외협력활동 강화, 동우회 운영 활성화 사업,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재능기부 등의 일환으로 회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백일신 회장은 "앞으로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동우회의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여 모범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원간 친목도모 및 국가와 도정발전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동우회는 현재 160여 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충청남도내포행정동우회 010-6425-5928

충남도정

발행인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창간 1990년 12월 1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편집인 충청남도 공보관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안내 041-635-2035

백종원과 함께 푸드테크산업 이끈다

도·예산군·더본코리아·공주대 협약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유치 '시동'

충남도가 푸드테크산업 성장과 관련 국가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백종원 더 본코리아 대표와 힘을 합친다.

도는 1월 24일 예산군 더본외식산업 개발원에서 '푸드테크 산업육성 및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푸드테크 산업은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핵심으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T)·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新)산업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4개 기관은 ▲농

림축산식품부 주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현지 농산물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식품생산 체계 구축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국민의 식품안전 보장에 협력 한다.

구체적으로 더본코리아는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 푸드테크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브랜드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공주대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제품 개발과 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도의 푸드테크산업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한다.

도와 예산군은 내포농생명그린바이오집적지구 내에 푸드테크 혁신집적지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능형농장(스

마트팜), 산업단지, 연구지원단지 등을 조성해 농생명 산업 국가 선도 모델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에 나선 연구지원센터는 푸드테크 혁신집적지구 조성에 필요한 거점 지원시설로, 공모에 선정되면 2026년까지 105억원을 투입해 1만 2892m²(3900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기업 입주공간(연면적 1000m² 이상), 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시험 장비가 구축되며, 시제품 개발·기술 실증지원 등을 제공한다.

구축분야는 식물성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이클링이며 분야별 여건을 고려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장비가 도입된다.

/산업입지과 041-635-3442

협약에 따라 이들 4개 기관은 ▲농



도민들 갈고닦은 노래실력 뽐냈다

충남도는 TV조선 주관 설 특집 '노래하는 대한민국 충남편' 본선 행사 녹화를 관람객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1월 29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진행된 본선 행사는 앞서 예심을 거쳐 15개 시군 대표로 선발된 15개 팀이 시군 대항전 형식으로 노래경연을 펼쳤다. 노래하는 대한민국 충남편은 설날인 2월 10일 낮 12시 40분과 2월 17일 낮 12시 40분에 걸쳐 TV조선에서 방영된다.

/문화정책과 041-635-3812

'영농 안정'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촌용수 개발·배수개선 등

충남도는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3114억 원을 투입해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은 ▲농촌용수 개발 ▲농촌 용수 관리 ▲배수 개선 ▲방조제 개보

수 ▲가뭄 극복 등 20개 분야 총 369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추진 사업은 ▲농촌용수 이용 체계 재편 3지구 260억 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8지구 249억 원 ▲농업용수 자동화 2지구 50억 원 ▲수질 개선 5지구 160억 원 ▲방조제 개보

수 15지구 115억 원 ▲배수 개선 28

지구 626억 원 ▲호우피해 복구 143 지구 878억 원 ▲가뭄 극복 60억 원 등이다.

도는 이번에 확보한 예산으로 저수지·양수장 등 수원공을 개발하고 농업용수를 확보해 가뭄에 대비할 계획이며,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지성 호우 대비 배수장 건립 및 배수로 정비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농업정책과 041-635-4022

충남도민숲 조성 공동모금

도민의 참여로
홍예공원이 탄소중립 명품공원으로 거듭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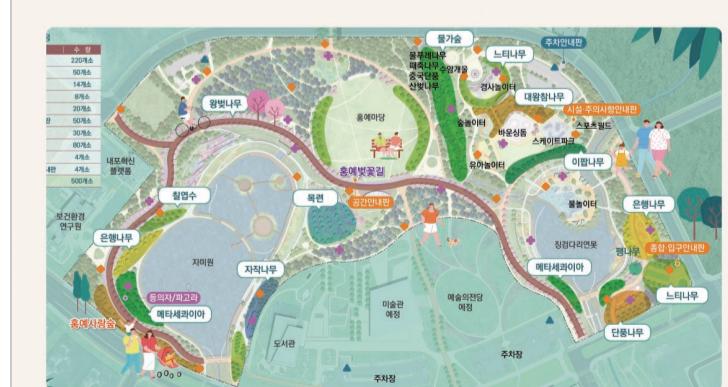
충남도민숲 조성

모두를 위한
나의 나무를 기부해요

참여기간 | 2023년 8월 ~
2025년 3월
참여방법 | 전용계좌 기부

도민참여 전용계좌 | 농협 301-0313-5905-61

행복한 충남 대안민족기념관



충남도민 참여숲 조성,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 공원 내 구조 개선, 디자인 혁신을 통해
홍예공원을 탄소중립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도민참여 문의처

충청남도 공공기관유치단 전화 041-635-3389
충청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화 041-635-0340

행복한 충남 대안민족기념관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0.85% 상승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0.85% 상승했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감정평가 기준, 토지시장 지가 정보 등으로 활용된다.

도내에선 개발 수요가 많은 아산시와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동남구가 각각 1.64%, 1.24%, 1.12% 순으로

최고 변동률을 기록했으며, 취하위는 -0.03%의 변동률을 기록한 금산군이다.

도내 표준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로 m²당 1102만 원이다.

가장 낮은 곳도 지난해와 같은 논산시 양촌면 반암리 산35번지로 m²당 358원이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1.09%이며, 최고 변동률은 세종(1.59%), 최저 변동률은 제주(-0.45%)로 나타났다.

충청권인 대전은 1.26%, 충북은 0.71%를 기록했고 인근 경기와 전북은 각각 1.35%, 0.21% 변동률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 지적부서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과 패스 또는 우편(서면)으로 가능하며, 해당 시군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토지관리과 041-635-4796

산불 예방 집중·초동 진화 강화

5월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충남도는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해 도와 시군, 읍면동 등 216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봄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4월 홍성군 대형 산불 등 77건이 발생해 총 1834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최근 10년간 우리 도 산불 주요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 48%, 쓰레기·논밭두렁 소각 26%, 담뱃불 실화 7%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봄철 건조기에 맞춰 입산자 실화, 소각에 의한 산불 등을 방지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도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 진화 헬기 총 5대(홍성, 논산, 천안, 보령, 서산)를 확대·배치했으며, 봄철 산불 초기 발견 및 신속 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 진화 차량, 등집펌프, 무전기, 무인 감시카메라 등 산불 진화 장비를 사전 점검·정비하는 등 초동 진화 태세를 정비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영농부산물 파쇄 등 장비를 확충하고 대중교통·대형 전광판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산불 예방 홍보도 진행 중이다.

또 도와 시군 공무원은 읍면 분단 마을을 지정해 산불 예방 마을 방송을 하고 노약자 등 산불 취약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자원과 041-635-4505

중기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

충남도는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인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의 2차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2월 16일까지이며, 지원 규

모는 1억 9600만원(80여 명)이다.

지원 대상과 자격은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사회초년생(하위직)에서 2차 공모부터는 직위제한을 없앴다.

도는 신청 기간 종료 이후에도 예산이 남아 있으면 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입지과 041-635-3450

“설 명절 선물 예산군 농특산물 어때요”

예산 황토사과·광시한우·미황쌀 등 농사랑 및 우체국쇼핑몰서 구매 가능

예산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황토사과 등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과 가공품을 소개했다.

먼저 예산황토사과는 청정 황토밭, 깨끗한 예당호의 물 등 우수한 자연조건에서 생산해 많은 이들에게 오랫동안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예산 사과를 활용한 사과즙, 증류주, 와인, 사과식초, 등 다양한 가공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어 예당호의 맑은 물과 천혜의 자

연환경을 갖춘 예당평야에서 자란 미황쌀이 있다.

미황은 예산을 대표하는 고품질 쌀 브랜드로 삼광벼 단일품종을 계약재배해 GAP 인증, 이력 추적 시스템을 갖추는 등 철저한 품질 관리를 받아 명절 선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군을 대표하는 맛으로는 한우와 소갈비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예산한우는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속에서 자연 친화적으로 자란 암소만을 엄선해 가공한 고급육으로 육색과 육질 등을 염격히 선별해 최고의 맛과 품질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예산소갈비 역시 특제 양념을 더해

부드럽고 고소한 맛과 높은 영양가로 유명하며, 명절 선물이자 먹거리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울러 예산을 대표하는 8미 중 하나인 예산 국수는 최고급 밀가루와 국산 천일염으로 자연 건조시킨 중면 수제국수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도 입소문이 나면서 예산을 찾는 방문객들이 양손 가득 기념품으로 구입할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전통의 맛과 향을 살린 전통과 최근 전국적 명소로 떠오른 예산시장에서 판매되는 예산사과를 활용한 카스테라와 애플파이, 페스추리 약과 등 디저트류도 가족과 함께 먹기 좋은



예산한우.



예산황토사과.

말했다.

한편 예산사과와 미황쌀 등은 관련 상품은 농사랑 및 우체국쇼핑몰 예산군 브랜드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예산군 제공



긴급차량 우선신호.

천안 ‘긴급차량 우선신호’ 운영

구급차 평균 출동시간 50% 감소

천안시가 2월부터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를 운영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는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차량의 위치와 방향을 자동 감지해 신호등이 녹색으로 변경, 목적지까지 연속으로 녹색신호를 받을 수 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지능형교통체계(ITS) 확대 구축사업의 하나로 개발됐다.

시는 충남소방본부, 교통정보센터와 연계해 교통신호제어기 800여 대 중 500대의 신호체계를 제어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상호협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1월 119안전센터 4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완료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천안로사거리부터 단국대병원까지 우선신호를 적용한 결과 구급차 평균 출동 시간이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긴급차량 우선신호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긴급차량의 출동 여건 개선과 응급환자의 거점병원 이동시간을 단축시켜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시 제공

내포신도시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

운동장, 울타리 놀이기구 등 구성

홍성군은 29일 홍북읍 신경리 산학2공원(홍북읍 신경리 1681)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약 420.5평(1420m²) 규모로 운동장, 울타리, 놀이기구 등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시설로 구성됐다.

안내소 및 화장실의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놀이터는 연중무휴 무료로 상시 개방되지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폭우·폭설 등 기상 상황에 따라서 휴장할 수 있다.

동물등록 및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한 반려동물이 보호자와 동반하여 이용 가능하고,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 가능하다.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 체고 40cm 이상은 대형견, 40cm 미만은 중·소형견으로 공간을 분리 이용해야 한다.



홍성 산학2공원에 조성된 반려동물 놀이터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해 보호자가 직접 배변 봉투를 지참하고 배변을 처리해야 한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홍성군 반려동물 놀이터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교감하며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건강한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군 제공

서산-대산방면 국도, 심야 점멸신호로 교통 정체 개선

교차로 25개소 심야시간 점멸등

서산시가 대산방면 국도 29호선과 38호선에 대해 심야(자정~새벽 4시 40분) 시간대 점멸 교통신호로 전환해 교통흐름을 개선한다.

국도 29호선, 38호선은 성연 테크노밸리, 지곡 오토밸리, 대산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다. 이곳 도로는 기업체 입주 및 공단 확장 등으로 교통량이 폭증해 교통정체가 심화돼 왔다.

특히 국도 29호선의 경우 대산방면

직진 위주의 교통 신호체계로 운영돼 좌회전 차량의 대기시간이 길어져 마을 진출입로 인근 신호위반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심야 특정 시간대 교통신호 점멸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대산을 내 등 보행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를 제외한 주요 교차로에 심야 시간대 점멸 교통신호로 전환해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시는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서산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에서 그 당위성을 인정받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야 교통신호 점멸 운영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도 29호선과 38호선의 46개 신호교차로 중 심야 교통신호 점멸 운영 예정 교차로 25개소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충분한 홍보 및 계도 기간을 확보해 교통신호로 전환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산시 제공

“보령 관광지서 사진찍고 선물 받자”

2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충남 보령시는 설 연휴기간 보령지역 관광지에서 인증사진을 찍어 누리소통망(SNS)에 올리면 선물을 주는 ‘B·T·S’(Boryeong Together Seol)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벤트는 2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천북굴단지(천수만

농어촌 테마공원)▲충청수영성(망화문)▲청소역(청소역 옆 포토존)▲성주사지(천년역사관 입구)▲대천해수욕장(노을광장)▲스카이아이크(스카이아이크 입구)▲석탄박물관(석탄박물관 입구) 등 8개소를 방문해 지정된 포토스팟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령시 관광마케팅

팀 인스타그램·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관광과(041-930-6564)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일 시장은 “설맞이 SNS 인증 이벤트를 통해 관광객들이 보령의 다채롭고 아름다운 관광지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시 제공

갑작스러운 등이나 허리의 통증은 췌장암일까?

공공의료원 칼럼

2023년 9월, 통계청에서는 ‘한국인의 2022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코로나19 4위는 폐렴, 5위는 뇌혈관질환이다.

전체 사망자의 22.4%가 암으로 사망하였고 이중 폐암이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간암, 대장암, 췌장암, 위암 순이었다.

최근 증가 추세인 췌장암은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 중의 하나이다. 진단 후 5년 내 상대 생존율이 13.9%에 그칠 정도이다.

췌장암이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췌장이 명치 깊숙한 곳, 등에 더 가깝게 위치해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통증이 없는 황달, 소화 불량과 복통, 체중감소, 당 수치의 이상, 등 통증이 알려져 있다.

자고 일어났는데 등이나 허리 통

증이 갑자기 생겼다면 췌장암을 먼저 의심해야 하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조건 100% 췌장암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췌장암 발생률은 약 1만 명당 한 명꼴로 낮기 때문에 등이나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췌장암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병원을 찾는 사람의 대부분은 근골격 질환이나, 대상포진 같은 신경성 질환, 건강염려증, 드물게 심근이나 대혈관 이상 등 다른 원인이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증상과 함께 등과 허리 통증이 나타난다면 췌장암을 의심할 수 있다.

1) 50대 이상의 환자가 처음 당뇨병이 발생한 경우.
2) 당뇨 조절이 잘 되던 환자가 특별한 원인 없이 혈당이 갑자기 조절되지 않는 경우.
3) 특별한 원인 없이 체중 감소 및 식욕 감소가 지속되는 경우.
4) 피부 및 결막(눈의 흰자)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있는 경우.

5) 소변 색이 짙어지며 대변의 색이 회백색으로 변하는 경우.

6) 가족(부모·형제·자매·자녀) 중 두 명 이상이 췌장암을 진단받은 경우.

또한 명확하게 밝혀진 췌장암의 원인에는 흡연이 있다. 비만과 당뇨, 만성 췌장염도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췌장암으로 인한 등 통증이 발생하였다면 췌장암이 진행되어 3기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막연히 등이나 허리가 아파서 췌장암을 검사하기보다는 췌장암과 관련된 다른 동반 증상의 유무를 파악하고, 췌장암 위험인자가 있는지 확인을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김탁용

서산의료원 5내과 과장

공주시, 충청권 대표 야간관광 도시 된다

원도심 일대 다양한 콘텐츠 확충
24억 원 투입해 2027년까지 개발

공주시의 아름다운 밤하늘과 공산성을 중심으로 한 화려한 도시야경에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해질 전망이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24억원(국비 12, 지방비 12억)을 확보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 이야기를 담은 야간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야간관광 콘텐츠 보강과 기반 시설을 확충해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2027년까지 야간관광 특화도시 총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2022년 2곳, 2023년 5곳 등 7곳에 이어 올해 마지막으로 공주시를 포함해 최종 3개 도시를 선정했다.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공주시



인문·예술강좌와 복고풍 밤 문화 체험 시설이 조성될 제민천 일대.

는 올해부터 4년간 지원받게 될 12억 원의 국비에 지방비 12억 원을 추가해 총 24억 원을 투입, 야간관광사업을 펼

치게 된다.

시는 하숙 마을을 끼고 있는 제민천 일대에 인문·예술강좌와 복고풍 밤 문

화 체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제민천 밤학당', 제민천 주변 자원을 활

용한 '레트로 온', 공산성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야간 캠프 등 주야간 관광 콘텐츠를 연계, 확장해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문화재 야행, 밤마실 야시장 등 원도심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해 특색있고 차별화된 야간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공주문화관광재단과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상가번영회 등과 협업을 통해 풍부한 야간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관객 체류시간 확대, 야간일자리 창출, 야간관광상품 개발 및 소비지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인 파급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기존 야간관광 자원들을 적극 연계하고 활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공주시 제공

태안군 올해 경로당 60곳 순회 진료

월 4회 방문해 맞춤형 진료 제공

있다.

2022년 9~12월 경로당 20곳을 120회 찾아 1877명에 혜택을 제공했으며, 지난해에는 50곳을 250회 방문해 총 4187명이 찾는 성과를 거뒀다.

1월 29일 소원면 소근리 경로당 순회진료에 참여한 한 주민은 "우리 마을에 순회 주치의가 언제 오나 기다렸는데 도움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약 한 달간 매주 한 번씩 온다고 하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은 이번 1기 방문(1월 26일~2월 26일)을 시작으로 올해 2기(4월 29일~5월 29일), 3기(6월 3일~7월 3일), 4기(9월 2일~10월 2일), 5기(10월 7일~11월 6일), 6기(11월 11일~12월 6일)에 걸쳐 순회 주치의 사업을 추진, 총 60곳의 경로당을 찾을 계획이다.

/태안군 제공

태안군이 추진하는 경로당 순회 주치의 사업이 1월 26일 태안읍 상옥1리 경로당과 장명(남산3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사업 운영을 시작했다.

경로당 순회 주치의 사업은 의료진이 관내 229개 전 경로당을 방문해 침 치료 및 상담, 혈압·당뇨 측정, 낙상 및 중풍예방 등 맞춤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보건의료원 의료진은 올해 12월 6일까지 8개 읍·면 경로당 총 60곳을 차례로 방문해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2022년 9월부터 보건의료원 소속 한의과 공중보건의 5명 등으로 팀을 구성, 경로당 한 곳당 매주 1회 씩 월 4회 이상 방문해 환자의 치료 경과를 살피고 추가 조치를 시행하고

보령시, MICE 산업 중심지로 '환골탈태'

머드테마파크 개관 후 243건 유치
58억 원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해

보령시는 지난 2022년 7월 개관한 '보령머드테마파크'가 다수의 국제회의 및 각종 행사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관 이후 지금까지 약 243건(누적 행사 참가자 4만1520명)의 국제행사와 학술회의, 기업체 워크샵 등을 유치했으며 행사 참가자와 동반가족의 소비 유도를 통해 약 58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했다.

보령축제관광재단 MICE사업팀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해 지난해 ▲국제행사(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보령행사 지원, 충남수소에너지국제포럼, 탄소중립확산대회) ▲전시박람회

(청소년진로박람회), 인센티브투어 단체 유치(주한미군 가족 단체, 주한 인도 단체 등) ▲대형행사(전국기능경기 대회, 장애인체육대회, JS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 환영만찬) ▲기업체 워크샵(타 시도 기업 임직원 워크샵 행사) 등 다양한 MICE행사를 운영 지원했다는 평가이다.

올해도 그간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대한치과보존학회 춘계학술 대회 등 대형학술회의를 유치 확정해 개최 예정으로 컨벤션시설의 디지털화를 통해 시설 경쟁력도 확보해 보령 MICE 산업 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 수행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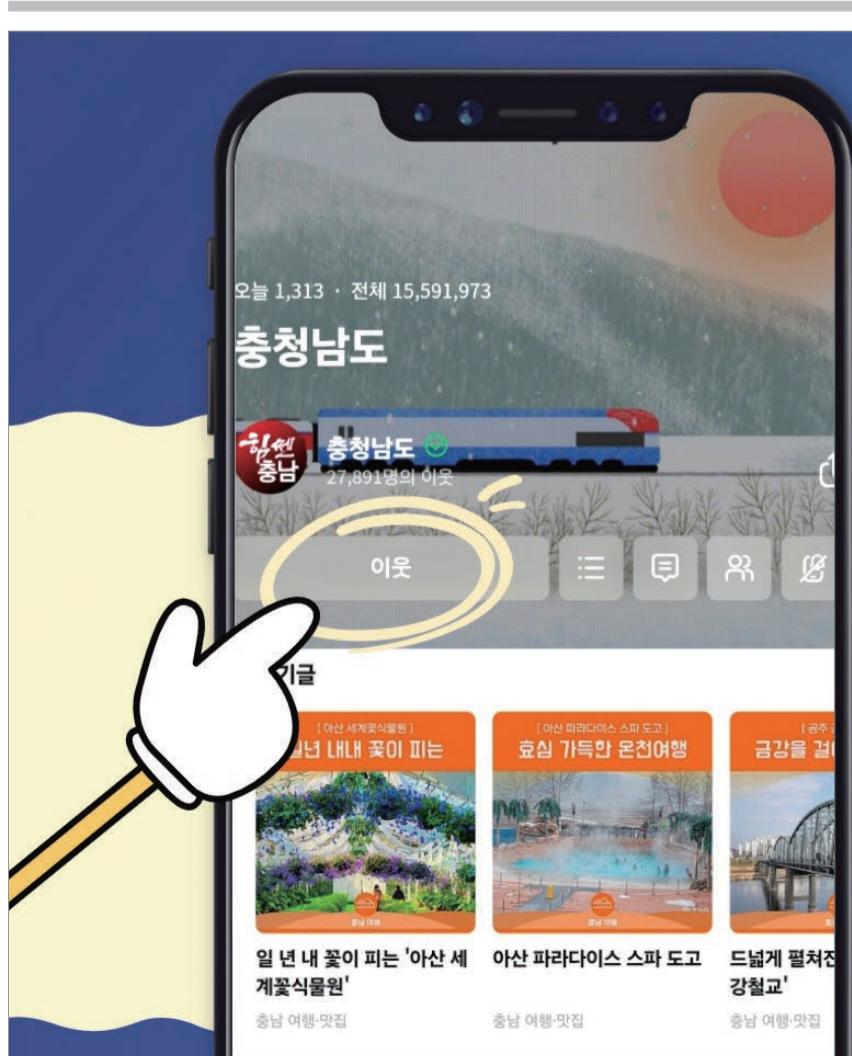
아울러 머드관 2층에 K-뷰티·치유관 조성을 7월까지 마무리하고 관광객들에게 머드를 활용한 사계절 피부미용 체험을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머드의 도시답게 머드의 우수성을 홍보

하고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K-뷰티·치유관 운영은 충남도립대(뷰티코디네이션학과)와 업무 협약을 통해 머드 뷰티케어 프로그램, 전문인력, 장비 등을 공유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일조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상범 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보령머드테마파크가 다양한 MICE 행사를 유치해 보령의 마이스 산업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올해는 머드뷰티 치유관이 개관함에 따라 컨벤션과 머드체험시설이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복합시설을 완성해 보령시가 충남의 대표적인 마이스 도시, 웰니스 관광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령시 제공



충청남도 블로그의 이웃이 되어주세요.

NAVER | 충청남도 블로그 검색

혜택.1 최신 정책/여행/생활정보를 한눈에!

혜택.2 각종 이벤트·공모전 참여 기회 풍성!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충남의 종가

2) 경주이씨 문현공파 종가



공주 상왕동에 위치한 용문서원. 용문서원을 중심으로 고택과 초려 이유태의 후학양성정신을 잊기 위해 세운 공주전통문화교육원이 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代이어 후학 양성하며 독립운동가·학자 다수 배출

초려 이유태 17세기 공주 중동골 정착

1651년(효종 2) 공주에 정착한 이유태(李惟泰, 1607~1684)는 효종 때 우암 송시열 등과 함께 북벌 계획에 참여했으며, ‘기해봉사’를 올려 국정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는 예학에 조예가 깊고 여러 개혁안을 제시하며 항촌 조직, 오가작통법 실시, 양전, 사창 설치 등을 주장했다.

이유태가 공주 중동골에 정착한 이후 후손들은 현재까지 학문과 가통을 잇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회영(李晦榮, 1861~1944), 이철영(李喆榮, 1867~1919) 형제 등과 같은 독립운동기를 배출하였다.

이유태의 종가는 왕촌천에 자리 잡았다. ‘왕촌’이란 지명은 왕씨가 살던 마을이란 뜻으로, 고려 말의 명신 왕강(王康, ?~1394)이 조선 건국 직후 왕씨 제거 정책에 의해 공주에 유배되었다 살해된 데서 유래한다. 마을이 번성했을 때에는 경주 이씨만 30호가 넘게 살았지만, 지금은 모두 합쳐 10여 호 남짓 남았다.

‘기해봉사’로 조선의 개혁 제시한 선비

이유태는 1607년(선조 40) 금산 노동리에서 태어났다. 이유태의 선대는 대대로 서울에 살며 벼슬 하던 집안이다. 이유태의 부친 이서(李曙)는 은덕부사를 역임하고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 토지가 있던 금산으로 낙향했다. 10세 때에 부친 이서가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 청풍김씨와 막형 이유택(李惟澤)의 교육과 보호 속에서 성장했다. 18세부터는 사계 김장생(金長生, 1548~1631)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동춘당 송준길(宋浚吉, 1606~1672), 우암 송시열(宋時烈, 1607~1689)과 깊은 우애를 나누었다. 30세 되던 1636년(인조 14)에 병자호란으로 인조가 청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하자 관직을 버리고 무주 덕유산의 산미촌에 들어가 살았다.

1649년 효종 즉위 후 북벌을 도모하면서 이유태는 송준길, 송시열, 권시(1604~1672) 등과 함께 관직에 진출한다. 그러나 이듬해 김자점이 청나라에 북벌을 밀고하면서 이유태는 조정에서 물러난다. 그 후 김자점 일파가 숙청되자, 1658년(효종 9) 송시열, 송준길의 천거로 사헌부 지평이 되었다. 이듬해 1659년(효종 10) 북벌과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상소문 만언봉사(萬言封事)를 작성했는데, 마무리하기 전 효종이 승하한다. 효종의 아들 현종이 즉위한 후 만언소(萬言疏)를 올려 당시의 폐단을 논하고 백성을 구하는 대책을 제시했으나 채택되지 않자 공조참의 관직을 버리고 낙향한다. 이때 올린 상소문이 바로 ‘기해봉사(己亥封事)’로 주요 내용으로는 ‘풍속을 바르게 하는 일’, ‘인재를 양성하는 일’, ‘낡은 폐단을 혁파하는 일’을 국정개혁의 3대 강령으로 삼아 내수사를 혁파하는 등 16조목의 국정혁신안이 담겨져 있다.

이후 1674년(현종 15) 예송논쟁에서 윤휴 등의

탄핵을 받아 평안도 영변에 유배된다. 1680년(숙종 6) 서인이 복귀한 ‘경신환국’으로 유배에서 풀려난 후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공주에서 독서로 여생을 보내다가 78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김집과 함께 『상례비요』, 『의례문해』 등을 함께 감수하고, 향약에 의한 항촌조직과 오가작통제, 양전의 시행과 사창 설치를 주장했다. 또한 그가 저술한 『정훈』은 가정교육의 요체를 정리한 것으로 후손이 보고 실천하기 쉽도록 했다.

초려 이유태의 입향과 세거

이유태는 평생 관직에 있기보다는 항촌에서 학문과 교육에 몰두했다. 그는 병자호란 이후 전북 무주에 살다 45세 되던 해(1651)에 지금의 대전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공주 초외(草外)에 들어와 살았는데, 이곳은 송준길의 토지가 있는 곳이다.

57세 되던 1663년(현종 4)에는 공주 상왕골로 이주했다. 집안에 전해지기로는 이유태가 대릉현령으로 있던 큰 형을 만나려 왕래하던 중 눈여겨본 장소라 한다. 73세 이후에는 독서로 여생을 보내다 78세에 세상을 하직했다. 그의 묘는 공주에 조성되었으나 이후 다시 연기 종촌(지금의 세종시 종촌동)으로 이장되었고, 후손들은 대대로 공주 상왕동에서 거주했다.

근현대 가문의 인물과 행적

경주이씨 문현공파 후손들은 10여 대에 걸쳐 내려오며 그의 학문을 이어갔다. 지금도 집안의 큰 어른 중에는 상투를 틀고 갓을 쓰며 생활하는 이가 있다. 문중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단발령에도 중동골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고 한다.

이유태의 9세손 이회영(李晦榮, 1861~1944)과 성암(醒菴) 이철영(李喆榮, 1867~1919)은 일제가 철도 부설을 하며 공주 선영을 침범하자 토지조사사업에 응하지 않고 항의한다. 또 1909년 일본이 호적을 만들려고 하자 끈질기게 저항하다 4백여 정보의 산과 들을 빼앗겼다. 이후 이철영은 부여에서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힘쓰며 일제의 명령을 거부하다 3차례 옥고를 치렀다.



초려 이유태 위패를 모신 명덕사.



재미동포 전혜영씨 등 미국의 젊은 드라마 작가들이 초려 종가를 방문, 종손 이정우(사진 오른쪽 다섯번째), 아당 이성우(한학자, 종손 동생, 사진 오른쪽 네번째), 초려문화재단 이연우 이사장(사진 오른쪽)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초려문화재단

이유태의 11세손인 현민(玄民) 이종선(李鍾宣, 1928~2008)은 공주시 충현서원 원장과 공주향교 전교를 역임한 공주의 대표적인 유림으로 한학에 조예가 깊었다. 12세손 아당 이성우 역시 고전번역과 인문학 강의로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다.

종가의 제례의식과 제사음식

12대 종손 이정우(李禎雨, 1941~)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어려서부터 한학을 익혔다. 집안 형편이 곤궁하여 직접 농사를 짓고 가문의 전통에 따라 제사를 받들고 빙객을 맞이했다. 종부 이선희(李善姬, 연안이씨)와는 1962년에 혼례를 치렀다. 매년 4대조에 대한 제사 7회, 명절 차례 등 도합 11회의 제사와 차례를 모신다.

제사 비용은 문중에서 운영하는 토지를 통해 얻지만 넉넉하지는 않다. 이유태의 묘 제사는 10월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하고 여타 조상의 제사를 봉행한다. 제사음식은 간소하게 준비하여 두부, 계란, 데지 수육, 쇠고기 육적 등만 마련한다.

섣달그믐 밤 차례 음식 장만을 마친 다음 조상 신과 집안 최고 어른에게 묵은 세배를 올리고, 설 날 아침 설 차례를 지낸 후 세배를 올리고 성묘를 다닌다. 설 차례에 참석하는 이들은 8촌 이내 친척 약 30여 명이다. 동지 차례는 음력 11월 중 양력 12월 22일쯤으로 새벽 팔죽을 쑤어 터줏신에게 올리고 설 차례와 동일하게 분향강신과 재

배만 한다.

설 차례 음식은 직접 기른 과실과 공주시장에서 구입한 생선 육류 등을 사용한다. 설의 떡국에는 만두도 함께 끓이는데, 만두소에는 간장에 절인 집고추를 넣는다. 상에는 북어포, 오징어회, 과일, 야채전, 완자, 허파전, 명태전, 동치미, 식혜, 약과, 정과, 데지편육, 흥어찜을 올린다. 동지 차례에는 새알심 넣은 팔죽, 어회, 데지편육, 마른오징어포, 명태찜, 동치미, 식혜, 과일을 쓴다.

담장을 사이에 둔 종가와 서원

공주 상왕동에 있는 종가와 용문서원은 ‘공주 이유태 유허지’로 2004년 10월 30일 충청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다. 이곳은 한국전쟁 중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1970년~1985년 복원했다. 복원을 주관한 종손은 이유태가 ‘정훈’에서 제시한 가옥의 구조를 따랐다고 한다.

종가와 서원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이웃해 있다. 용문서원의 중앙에는 초려 이유태의 위패를 모시는 명덕사(明德祠)와 제사 준비 공간인 존성재(存省齋)가 자리 잡았고, 그 외에 공부하는 공간인 중화당(中和堂), 유물전시관인 미원당(微遠堂)이 있다. 그리고 서원 오른쪽으로 2007년 건립된 공주전통문화교육원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용문서원의 전통 학맥을 계승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고전강독 및 각종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초려 이유태의 손길이 묻은 유물 23점은 충남 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 호缥(상아제, 목제품) 9점, 인장(옥제, 목제품) 5점, 옥관자, 표주박, 첨통과 강경통 그리고 이유태의 묘소를 이장할 때 나온 매병과 향아리 2점이 있다.

초려 이유태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은 공주시(유허와 유물), 대전광역시(전적), 세종특별자치시(묘와 신도비)가 각각 문화재로 지정해 관리중이다. 세종시에 있는 이유태의 묘소와 갈산서원 일원은 2015년 충청지역 유림들의 강력한 주장과 노력 덕분에 초려역사공원으로 조성되었고, 각종 교육과 전통행사 등 문화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유교문화연구부장 서홍석

경주이씨 문현공파의 주요인물 생몰년도

인물	특이사항, 활동
이유태(李惟泰, 1607~1684)	공주 이거, 충청5현, 기해봉사, 『초려집』 저술
이단장(李端章, 1664~1727)	이유태 손자, 승정원 승지
이회영(李晦榮, 1861~1944)	이유태 9세손, 한학자
이철영(李喆榮, 1867~1919)	항일운동, 『성암집』 저술
이규현(李圭憲, 1896~1976)	한학자, 『금당집』 저술
이종선(李鍾宣, 1928~2008)	일제강점기 단발과 징병 거부, 『현민집』 저술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미리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설 예절

간소하게 준비하는 설 차례상

차례란?

차례는 설, 한식과 같은 절일에 음식과 과일, 술과 차를 올리며 지내는 약식제사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차를 올리지 않지만, 여전히 차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신위(神位): 사진과 지방

사당이 없는 일반 가정에서는 지방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으나, 사진을 두고 제사를 지내도 괜찮습니다.

✓ 과일 놓는 방법

예법을 다룬 문헌에 홍동백서나 조율이시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과일의 경우 4~6가지를 편하게 놓으면 됩니다.

✓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은 차례상에 꼭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전을 부치느라 고생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셔도 됩니다.



<설 차례 간소화 진설도>

즐거운 인사를 나누기 위한 자세 '공수(拱手)'

우리의 전통 예절에서는 손을 가지런히 모으는 자세를 취하는 것부터 배웁니다.
이때 두 손을 모으는 것을 '공수(拱手)'라고 합니다. 세배를 할 때에도 공수를 한 후에 절을 하면 됩니다.

남자 세배 방법



왼손을 오른손 위로
올린다.



엎드리며
왼쪽 다리부터
꿇는다.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며
이마가 손등에 닿게 머리를 숙인다.



앉은 반대 순서로 일어나
양발을 가지런히 모은다.

여자 세배 방법



오른손을 왼손 위로
올린다.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을 가지런히 꿇는다.



상체를 앞으로 굽히며
손바닥을 바닥에 댄다.



앉은 반대 순서로 일어나
양발을 가지런히 모은다.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설날 명절, 충남도민이 함께 만들어요! Q&A

Q. 최근 명절 풍속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명절에 경험하는 성평등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서울시 명절 시민 의견조사 결과(2019년), 복수응답으로 진행한 ‘내가 겪은 성평등 명절 사례’로 ‘명절 집 안일, 운전 등 나눠서 하기’(29.0%), ‘차례 준비 간소화’(24.3%), ‘명절 방문을 양가 번갈아 가기’(22.1%)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차례 지낼 때 남녀가 같이 절을 하는 경우, 외식하고 여행가는 등 기존의 명절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명절 문화를 만드는 것도 좋은 사례로 응답했다고 합니다.

Q. 가족, 친지가 모이는 즐거운 명절에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화제의 말! 말! 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 30대 여성의 명절 성차별로 뽑은 사례는 ‘여자는 나이들면 안팔리니 예쁠 때 얼른 결혼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결혼은 선택이니 하고 싶을 때 하도록 하렴’으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그 외에도 ‘공부는 잘 하니?, ‘취업은 했니?’, ‘아이는 언제 가질거니?’ 등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에 대한 관심으로 표현했던 질문들이 질문을 받는 사람에게 유쾌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의식중에 던지기도 합니다. 삶의 전 과정에서 학습된 성역할 고정관념이 한 번에 바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고 변화를 수용하는 노력이 행복한 명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Q. 명절에 알게 모르게 사용했던 가족 간 언어예절을 방해하는 성차별적 언어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A. 우선 가족을 부르는 호칭에서 발견됩니다. 남성 쪽 식구만 친하다는 의미가 담긴 ‘친가(親家)’로, 여성 쪽 식구는 바깥·타인이라는 의미의 ‘외가(外家)’로 부르는 대신 ‘아버지 본가’, ‘어머니 본가’로 바꾸어 부르고, 남성 쪽 식구만을 과하게 높여 부르는 ‘시댁’, ‘서방님’, ‘도련님’, ‘아가씨’ 등의 호칭을 ‘님’ 또는 ‘씨’를 붙여 부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를 ‘장인어른·장모’ 대신 ‘아버님·어머님’으로, 외조부모를 ‘와’ 자를 붙이는 대신 ‘할아버지·할머니’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Q. 같이 행복한 설날 명절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 볼까요?

A. 평소보다 늘어나는 집안일과 운전 등 나눠서 하기, 차례 준비 간소화, 명절 방문을 양가 번갈아 가기, 양가 부모님 용돈 동일하게 드리기, 차례 지낼 때 남녀가 같이 절하기, 성평등 언어 사용하기 등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명절맞이 성평등 게임

▶ 집안일 사다리 게임으로 분담하기!



사다리 게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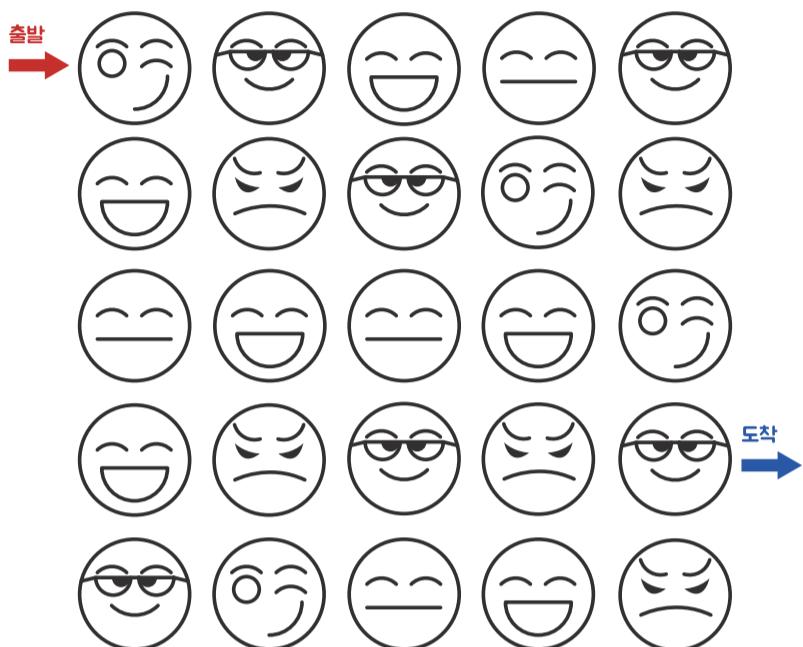
사다리 게임 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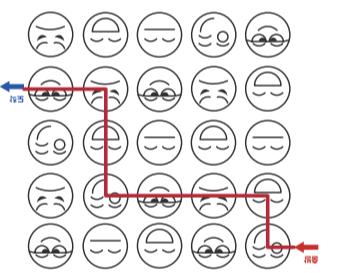
/이경하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치매예방 두뇌훈련 퀴즈

[보기]와 같은 순서의 규칙대로 도착지점까지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출처 / 한국치매예방협회 위드실버



:吕

일자리 정보

※문의 -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 041-404-1421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
천안	(주)상신종합식품	전자제품 제조기계 설치·정비원	1명	041-585-5850	연 3,600만원 이상	논산	(유)삼각에프엠씨웰빙랜드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그 외 분야)	1명	062-951-1881	연 3,000만원 이상
천안	(주)지엠씨텍	제조 단순 종사원	1명	041-555-1412	연 3,300만원 이상	논산	(재)원불교은혜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	041-742-2542	월 210만원 이상
천안	카프자동차정비(주)	자동차 차체·판금·도장 정비원	3명	070-4365-5565	월 300만원 이상	보령	상림	배송·납품 운전원(납품영업 포함)	1명	041-931-9634	월 300만원 이상
천안	주식회사애이알아이	전자제품 제조기계 설치·정비원	1명	070-7576-3672	연 3,200만원 이상	보령	동그라미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	041-933-8669	월 218만원 이상
아산	흥성공업주식회사	농업용 및 기타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명	041-543-0531	월 300만원 이상	보령	주식회사케이디에프	주입·포장·상표부착기 등 기타 기계 조작원	10명	041-931-0382	연 3,800만원 이상
아산	(주)그린리아이에스	중·대형 화물차 운전원(트레일러 포함)	1명	041-548-8333	연 4,000만원 이상	보령	한국후고꾸(주)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기계·자동차·금속)	3명	041-936-9271	연 3,700만원 이상
아산	주식회사금성풍력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전기·전자·컴퓨터)	1명	041-912-2500	연 3,400만원 이상	계룡	주식회사사티에스씨(TSC)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3명	042-841-5080	연 2,600만원 이상
아산	주식회사제이앤아이워터	수질 환경 기술자 및 연구원	2명	041-531-8483	연 3,000만원 이상	계룡	주식회사이루모스	자재·구매·물류 사무원	1명	042-551-3200	월 250만원 이상
당진	(주)케이에스엔	건축안전·환경·품질·에너지관리 기술자	2명	032-566-8713	연 3,400만원 이상	홍성	(주)코에코	경리 사무원	1명	041-630-1614	월 220만원 이상
당진	주식회사아리랑유통	배송·납품 운전원(납품영업 포함)	2명	041-356-8751	월 320만원 이상	홍성	(주)두현이엔씨	하수·폐수 처리장치 조작원	1명	041-544-6250	연 3,000만원 이상
당진	주식회사제이엔텍	수질 환경 기술자 및 연구원	1명	070-4290-4534	연 4,000만원 이상	예산	(주)그린플러스	영업 기획·관리·지원 사무원	1명	041-332-6421	연 3,100만원 이상
당진	대주중공업(주)	크레인·호이스트 설치·정비원	1명	070-7015-1446	연 5,000만원 이상	예산	(주)사랑과선행	한식 조리사	1명	031-731-8191	월 260만원 이상
서산	우리들주야간노인복지센터	사업체 구내식당 급식 조리사	1명	041-667-0524	월 250만원 이상	태안	(주)케이엠에프태안지점	플라스틱 시출성형기 조작원	1명	041-584-0106	시급 10,200원 이상
서산	서산고운정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1명	041-664-7775	월 210만원 이상	태안	서해냉동영어조합법인	어업 단순 종사원	2명	041-673-1251	월 230만원 이상
서산	미래건설산업(주)	경리 사무원(건설)	1명	041-668-5542	연 2,700만원 이상	서천	양한물산영어조합법인	제조 단순 종사원	4명	041-952-6670	월 220만원 이상
서산	(A+)태안노인방문요양센터	재가 요양보호사	1명	041-675-8891	시급 12,500원 이상	서천	(주)우리에프엔비서천공장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음식료품)	2명	041-956-6670	연 3,000만원 이상
공주	주식회사베스트산업	중·대형 화물차 운전원(트레일러 포함)	2명	041-856-2740	월 350만원 이상	부여	(주)한국에어로테크부여지점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건설)	2명	02-2025-3113	월 300만원 이상
공주	주식회사에니켐텍	화학공학 시험원	4명	041-858-0076	연 3,000만원 이상	부여	주식회사계림풀리콘	기계·금속·비금속 제조 관리자(공장장)	1명	041-833-3865	월 400만원 이상
공주	한국페라리트랙터	건설·광업·농업 기계 조립·검사원	1명	041-852-6508	월 210만원 이상	금산	(주)대경에스코	재활용 처리장치·소각로 조작원	1명	041-751-5111	연 3,200만원 이상
공주	(주)한국건설안전공사	토목안전·환경·품질 기술자	2명	042-825-0804	월 240만원 이상	금산	티앤피푸드주식회사(T&PFoodCo.Ltd.)	정육원	5명	041-751-4294	월 230만원 이상
논산	연산식품	두부 및 유사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1명	041-733-2656	월 210만원 이상	청양	에스엠인더스트리주식회사케미칼사업부	인사·노무 전문가	1명	041-940-5750	연 2,600만원 이상
논산	논산실버효센터	간호조무사	1명	041-735-5115	월 222만원 이상	청양	(주)삼화그린텍	지게차 운전원	1명	041-942-5030	연 3,000만원 이상

2월 문화 달력

행복 가득한 설날 되세요

자료제공/충남문화관광재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4

15

17



**피나클랜드 얼음정원
눈꽃축제 눈썰매장 OPEN!**

기간: 2024-01-03 ~ 2024-02-18
장소: 아산피나클랜드
시간: 09:00
비용: 24,000원
대상: 전체관람가



추리극『쉬어매드니스』

기간: 2024-02-14 ~ 2024-02-17
장소: 서산시문화회관 소공연장
시간: 19:30
비용: 전석 10,000원
(할인 I _ 8,000원, 할인 II _ 5,000원)
대상: 16세 이상 관람 가능
문의: 041-661-8023

사서고생 2월 강연

기간: 2024-02-15 ~ 2024-02-15
장소: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다목적실1
시간: 19:00
비용: 무료
대상: 전체 / 인원 30명
문의: 041-635-8000



2024 HELLO 모나밸리 신년음악회

기간: 2024-02-17 ~ 2024-02-17
장소: 디바인밸리홀
시간: 17:00
비용: 50,000원
문의: 041-582-1004



[2017~2018년생] 동화로 배우는 영어

기간: 2024-01-31 ~ 2024-02-21
장소: 충남도서관 다목적실2
시간: 17:00
비용: 무료
대상: 어린이
문의: 041-635-8000



신불당아트센터 M-Stayion 갤러리 24년 2월의 작가 이가은

기간: 2024-02-01 ~ 2024-02-25
장소: 신불당아트센터
시간: 00:00
비용: 무료
대상: 무료 전시 관람



오늘의 빛, 찬란한 내일

기간: 2023-12-12 ~ 2024-02-29
장소: 당진문화예전당 [야외공연장]
비용: 무료
문의: 041-350-2911



**고암이등노생가기념관
솔거미술관공동기획 교류전
<玄之又玄>**

기간: 2023-12-22 ~ 2024-03-10
장소: 이등노의집-고암 이등노 생가 기념관
시간: 00:00
비용: 무료
문의: 041-630-9232



사서들의 서재



'좋아요'는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는가
가/기욤 피트롱 지음, 양영란 옮김/갈라파고스/2023

요즘 '탄소중립'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

디지털 세계 속 보이지 않는 탄소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기후변화협약(1992), 교토 의정서(1997), 파리 협정(2015) 등을 맺는 등, 2050년까지 탄소의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로 2021년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하기,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에너지 소비 줄이기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디지털 세계는 탄소중립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언뜻 보면

가상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일 뿐 환경과는 상관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책은 스마트폰에서 출발하는 '좋아요'의 통신 신호가 해저 케이블과 데이터센터를 지나는 길을 설명하며, 디지털 세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대가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지적한다.

작고 가벼운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자원과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정보를 종이 대신 디지털로 저장하기 위해 얼마나 큰 데이터센터가 지어져야 하는지를 알아 가다 보면, 지금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조한서 충남도서관 정보서비스과

환경과는 상관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책은 스마트폰에서 출발하는 '좋아요'의 통신 신호가 해저 케이블과 데이터센터를 지나는 길을 설명하며, 디지털 세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대가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지적한다.

작고 가벼운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자원과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정보를 종이 대신 디지털로 저장하기 위해 얼마나 큰 데이터센터가 지어져야 하는지를 알아 가다 보면, 지금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조한서 충남도서관 정보서비스과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곳

도민이 소개하는 충남 구석구석

청양 칠갑산 얼음분수축제

매년 겨울이면 열리는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인 청양 칠갑산 얼음분수축제에 다녀왔다. (사진)



칠갑산 얼음분수축제는 볼거리뿐만 아니라 즐길거리가 참 많다. 얼음분수를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짚라인과 추억의 얼음썰매도 탈 수 있다.

/도민리포터 소니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락시장 최고가 부여 상추 비결은 꾸준함과 상품성”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

귀농부인농장 대표 순지연

3번의 수해에도 연 매출 2억 달성

“농업은 평생직업 80살까지 일하고파”

“상품성은 정말 자신 있다. 얼마를 손해 보더라도 제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판매하지 않는다”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위치한 하우스 15동에서 남편과 함께 상추, 수박, 병풀토마토를 기르는 순지연(38) 대표의 귀농부인농장은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 도매시장에서 고가의 상추 재배 농가로 통한다.

순 대표는 “처음엔 상추 한 박스(4kg)에 6100원을 받았다. 다른 농가의 절반도 안 되는 평가에 낙심하기도 했지만, 꾸준히 좋은 상태의 상추를 출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최고가 12만 9000원에 낙찰되는 등 상품성을 인정 받았다”고

말했다.

일 년 내내 기쁜 모든 작물은 가락동농수산물 종합 도매시장을 통해서만 판매하는데, 지난해 3번의 수해를 본데도 불구하고 연 매출 2억 원을 달성했다.

고향인 부여로 내려와 귀농인의 자격을 얻기 위해 교육 100시간 이상을 수료 후 2019년 귀농부인농장이라는 상호로 출발했지만 순 대표는 아직도 교육이 있다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는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 농사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 될 수 있다면 먼 거리여도 찾아가서 교육받으려고 한다”며 농업에 대한 열의를 내비쳤다.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와드린 어린 시절부터 남들보다 손이 빠르고 야무졌다던 순 대표는 “수박으로 시작해 상추, 애호박, 병풀토마토까지 모든 작물을 성공적으로 길러냈지만, 지난 5년간의 농업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했다.

처음 부여 10미중 하나인 수박을



귀농부인농장 대표 순지연씨가 수확한 상추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최현진

주 작목으로 길러내 포전거래(圃田去來, 밭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밭에 있는 채로 몽땅 사고파는 일)를 성사했지만, 출하 일주일 전 당도를 문제 삼으며 가격을 절반으로 제시해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2년여 간의 재판 끝에 승소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하우스가 물에 잠기는 수해를 입기도 했다.

농부 이전에 두 아이의 엄마인 순 대표는 “365일 중 쉬는 날이 없어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면서 “하루는 애호박 수확을 준비 중이었는데 둘째 아이가 막대기로 애호박을 때리

길래 이유를 물었더니 애호박이 없어야 엄마가 자기랑 놀 수 있다고 답했다. 그 길로 애호박은 접었다”라고 말했다.

순 대표가 지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꿈’이다.

그는 “농업을 하기 위해 부여로 내려오면서 평생직업으로 80살까지 일할 결심을 했다”며 “멋진 집을 짓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꿈을 대신 이뤄드리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겪은 힘든 일들이 다음 사람에게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 대표는 2022년 6명의

멤버와 함께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강소농 모임체 ‘잇츠드림’을 결성했다.

잇츠드림 활동으로 부여 신규 농업인, 귀농인들에게 농업기술 전수부터 장비 대여, 정보 공유 등의 도움을 주고 있다.

순 대표는 “농부는 농사를 잘 짓는 게 다가 아니다. 농촌 생활에도 적응해야 하고 주변 농부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다”며 “청년 농업인이나 귀농·귀촌인 중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해든 deun127@korea.kr



“커피를 알고 세상이 재미있어졌어요”

일흔의 커피로스터 최명돈 씨
커피 프로그램 운영 계획



일흔살의 최명돈(사진) 커피로스터는 하루에 딱 커피 열 잔만 팔고 싶다고 말한다. 그 이상도 바라지 않는다. 커피를 팔고 싶은 이유는 새로운 원두를 사고 싶어서다. 늘 새로운 원두를 나오고, 그 원두를 어떻게 볶고,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커피 맛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커피를 탐구하는 재미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 그의 나이 60세 무렵이었다. 환갑을 넘어 갖게 된 ‘커피로스터’라는 직업이 그를 아직도 꿈꾸게 만든다.

정미면 하성리 출신의 최씨는 정미초와 미호중을 졸업 후 서울로 갔으며 서울대 졸업 후에는 고려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고 삼성그룹 비서실과 AIG그룹에서 근무했다. 1997년부터 인사조직분야의 컨설팅을 해오던

중·지인의 권유로 커피와 인연을 맺었다.

3년 전 은퇴후 고향과 멀지 않은 용연동에 살 집을 지었고 지난해 말 집 근처에 ‘용연공방’이라고 이름을 지은 커피공방을 열었다. 올해부턴 커피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씨는 “커피를 알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어요. 커피를 몰랐다면 무얼 하고 있을까요. 아마 책을 보고 연구하고 있겠죠. 나이가 들면 또 책을 보는 것도, 글을 쓰기도 쉽지 않아요. 차츰 인생이 지루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커피를 알게 된 지금은 매일매일 하루 하루가 재밌습니다.”라고 말했다.

/당진시대 제공



유희승(사진 왼쪽)·이은영(사진 가운데) 부부.

결혼기념일 부부 선물은 ‘나눔’

유희승·이은영 부부
“나눌 수 있어 행복”

유희승·이은영 부부가 결혼기념일을 맞아 지난 23일 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후원금 500만원을 전했다.

부부는 2021년 1월 23일 결혼했다. 흥성이 맺어준 인연이다. 유희승 한의사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 졸업 후 흥성군보건소에서 공보의를 했다. 공보의를 끝낸 후 2012년 흥성에 ‘유희승한의원’을 개원했다. 현재 내포신도시 모아엘아가아파트 인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은영 변호사 역시 서울이 고향이다. 서울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7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다. 결혼과 함

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남편이 있는 흥성에 정착했다. 현재 대전지방 법원홍성지원 앞에 있는 ‘법률사무소로움’ 대표 변호사다.

유희승 한의사는 “흥성이 정착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흥성은 이제 고향이나 마찬가지다. 결혼기념일을 맞아 흥성의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후원을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 적극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22년 9월에는 한사랑지역아동센터에 300만원의 후원금을 전했다. 지난해는 흥성이주민센터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 정성을 보태기도 했다.

/흥성신문 제공



품 들깻묵 연필을 출시했다.

신상품만이 입점할 수 있다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에 지난 8일, ‘들깻묵 연필’이 소개되자 단 하루만에 목표액 50만원을 훌쩍 넘겼다.

제품 개발을 주도한 엄청나 상임이사는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면 ‘와디즈’에 펀딩하는 것이 좋다. 펀딩 기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길게 잡아놨는데, 하루만에 목표액을 달성했다”며 “환경과 인체에 해롭지 않은 제품이라면 기꺼이 지갑을 열

/무한정보신문 제공

들깻묵으로 빚어낸 농민의 꿈

‘매현생명창고’의 또 다른 보물
들깻묵연필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들깻으로 연필을 만들겠다는 생각.

정확히 말하면, 들깻으로 기름을 짜내고 남은 깻묵을 활용해 만든 ‘들깻묵연필’이다.

예산지역 기업인 농업회사법인 내포주시회사(대표 박형·사진)가 갑진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다른 친환경 제

국립국악원 서산분원의 가치와 역할

내포칼럼



최혜진
목원대 교수

화된 지역의 예술 지원과 연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전통예술의 질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남원은 창극, 진도는 굿, 부산은 춤이 대표적인 예술종목으로 자리잡아 지원과 공연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산은 ‘중고제 가무악’과 ‘연희’를 그 중심에 놓고 향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본다.

다른 지역과 달리 충남권은 고제 판소리가 성행했던 곳이며, 명인 명창들이 매우 많이 배출된 예술의 선진지역이었다. 그것은 활발한 무역과 항구가 발달한 내포지역이 문화와 상품의 유통 거점이 되기 좋은 입지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내포지역을 중심으로 발달된 예술은 결성의 최선달이 최초의 명창으로 이름을 날렸고, 서산의 고수관, 방만춘을 거쳐 근대 서산의 심정순, 서천의 이동백, 김창룡 등으로 이어지며 중고제 판소리의 맥을 형성했다. 내포권에서 금강권으로 이동하며 충청지역의 예술은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였다.

중고제 예술은 판소리뿐만 아니라 판소리 가계에서 형성된 춤과 연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충청도에서 형성된 판소리가문의 가무악 전통이 우리나라 근대 예술의 모태가 되고 원형적 구실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심정순 조카 심상건의 가야금산조와 병창, 백낙준의 거문고산조, 윤종선의 내포제 시조, 한성준의 춤과 김

석장 가계의 춤, 심화영의 승무에 이르기까지 충청권에서 발달한 가무악은 전통의 원형 구실을 하며 맥을 이어 나갔다. 충청의 예술은 다른 지역과 달리 담백하고 고졸(古拙)하며, 품위있는 자태와 온순한 말씨 등 우리 지역의 정서와 멘을 담뿍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예술의 발굴과 연구가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

게 될 것이다.

국립국악원 서산분원은 그러한 점에서 충청권의 전통예술을 두루 살피고, 고제의 전형과 원형을 잘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간 충북의 영동, 충주, 청주 등과 충남의 공주, 흥성 등지에서도 국립국악원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것은 지역의 전통예술 발전이 우리 정체성의 확립과 후세대에

이를 통해 국악인은 물론 지역의 전통 예술이 보호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국립국악원의 설립과 함께 지역예술인이 함께 그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랜 숙원이었던 국립국악원 분원 설립과 국악진흥법의 시행은 단지 국악이나 지역예술인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K-컬처라고 하는 우리 문화의 전통성, 원형성이 바로 국악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자국의 문화를 버리고 세계와 경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었다. 드라마, 음식, 노래, 영화 등 세계문화를 주도하는 한류의 중심에는 전통이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민족의 신명과 흥이 그대로 녹아있는 가무악의 전통은 새로운 한류의 모태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점에서 이제 우리는 국악에 대해 더 열심히 배우고 익히며 개발할 사명이 있다.

국악의 발전은 곧 우리 문화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며,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콘텐츠 생산으로 이어진다. 어릴 때부터 국악을 보고 듣고 즐기게 해주어야 전승이나 활용도 가능하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지역의 국악, 충청의 중고제를 교육하고 널리 알리도록 하는데 국립국악원 서산분원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지대하다. 과거 충청인들이 가졌던 도도하고 선진적인 문화적 창조력이 국립국악원 분원 설립을 계기로 더욱 높아질 바란다.

“

국립국악원 서산분원 유치는 지역 전통예술 발전 획기적 계기

국악은 K-컬처의 원형…전통예술의 집산지 돼야

충청인이 가졌던 도도하고 선진적인 문화적 창조력 발휘 기대

”

았다. 그러다보니 중고제 관련 연구나 복원, 전승 등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국립국악원이 서산에 건립되는 만큼 중고제 관련 연구와 복원에도 큰 힘을 얻을 것이며, 관련된 교육과 콘텐츠도 많이 생길 것이라 기대가 크다. 그간 지역예술인들이 고군분투하며 노력해왔던 점을 생각할 때 국립국악원은 중고제 예술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질적으로 우수한 공연을 선보이

남기는 문화적 유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만큼 서산은 충청을 아우르는 전통예술의 집산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2024년은 국악진흥법이 시행되는 해이다. 국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해 법안을 마련하는 일에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비로소 그 열매를 맺었다. 국악진흥법이 시행되면 문체부는 5년마다 국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악의 날’을 지정해야 한다.

지난해 말 국립국악원 서산분원이 건립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2024년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 문화예술타운 부지 조성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준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필자 역시 국악 관련 연구를 하며, 충청지역 국립국악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니던 차에 서산에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니 반갑기 그지없다. 이제 국립국악원은 남원, 부산, 진도, 강릉에 이어 다섯 번째 분원을 서산에 설립하게 되었다.

국립국악원은 우리나라 전통가무악을 전승, 발굴, 연구, 교육하는 동시에 국악의 대중화와 콘텐츠화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음악의 대표적인 기관이다. 그간 분원이 설립된 곳에서는 특

봄의 전령사, 얼음새꽃의 비밀

식물이야기

얼음새꽃(복수초)

2월은 고요한 시간 속에서 차가운 바람이 따스한 봄의 기운으로 바뀌기를 희망하는 시기이다. 겨울의 마지막 추위 속에서 다른 식물보다 한 발 먼저 피어나는 야생화를 만난다면 자연의 생명력과 위대함을 느낄 수 있다. 오늘 소개할 식물은 “봄의 전령사”라는 별명을 가진 얼음새꽃이다.

천리포수목원의 초본식물 중에서도 가장 먼저 피어나는 얼음새꽃은 추운 날씨에도 눈을 비집고 샛노랗게 피어나 아름다운 감동을 준다. 손가락 한마디만한 동그란 꽃은 봄이 오는 발자욱 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모습을 드러낸다. 한겨울의 긴 밤과 친바람을 견뎌내고, 계절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아무리 봄이 다가온다지만 어떻게 눈이 쌓인 자리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얼음새꽃은 자기 스스로 열을 내어 난방을 한다. 이는 식물체 내부에서 스스로 열을 내어 쌓인 눈을 녹인다. 식물 세포의 호흡과 열 저장으로 얼음새꽃의 주위는 주변보다 따뜻한 영상 10~15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얼음새꽃은 꽃의 안쪽에서 온도를 보전한다. 꽃잎의 가장 자리가 해를 바라보며 꽃잎의 안쪽은 빛을 잘 반사되게 하고, 꽃은 해

■ 식물 생육환경 얼음새꽃은

미나리아재비과(Ranunculaceae)의 다년생초화로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 한다. 2~3월에 황금색 꽃을 피우며 주로 배수가 잘 되고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을 선호한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월동할 수 있다.

■ 꽃말과 이름의 유래 강인한

생명력에 빗대어 영원한 행복을 말하며 다른 이름인 복수초(福壽草)는 여름송이의 꽃이 피는 모습에 행운과 장수를 상징한다.

학명인 “Adonis amurensis”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종명인 “Adonis”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도니스(Adonis)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식물이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상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속명인 “amurensis”는 라틴어에서 이 식물이 처음 발견된 아무르 강(Amur River) 지역을 지칭한다. 즉 추운 아무르강에서 발견된 아름다운 식물이라는 뜻이다.



천리포수목원에서 꽂 피우는 얼음새꽃. (태안 곳곳에 자생하며, 천리포수목원에서는 겨울정원에서 볼 수 있다.)

가 뜨면 피기 시작하여 해가 질 때 오므리들어 온도를 지켜낸다. 이러한 식물의 특징으로 인해 꽃이 활짝 피어있는 낮엔 파리나 작은 벌들이 꽃에서 꿀과 꽃가루를 취하고 몸을 데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도 한다.

이른 봄, 나무가 신록을 피우기 전 까지 열심히 생명활동을 한 얼음새꽃은 기운이 올라오는 여름이 되면 종자를 산포하고 잎이 녹아 없어져 하면(夏眠, 여름잠) 한다.

제작년, 태안의 한 섬에서 얼음새꽃을 만난 순간이 생생하다. 우거진 숲의 깊은 경사를 따라 내려가 만난 얼음새꽃 군락은 정말 경이로웠다.

봄을 알리는 수많은 야생화 중에 얼음새꽃만이 전하는 특별함을 느낄 수 있었다. 매년 늦겨울 천리포수목원에서 얼음새꽃의 개화소식을 듣고 찾는 많은 탐방객과 사진작가가 있다. 그들은 그 해 맨 처음 얼굴을 비춘 황금빛 꽃에 마음을 뺏기곤 한다. 글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신비로운 감동의 이유를 찾기 위해 오늘도 무릎을 끊고 땅에 엎드려 얼음새꽃을 관찰한다.

※ 복수초로 알려진 얼음새꽃의 뜻은 “얼음을 녹이면서 피어나는 꽃”이며 순 우리말이다.
/천리포수목원 강희혁 연구원

김미희 어쩌다 마주친 폰카 시



태안 파도리에 있는 어느 카페 입구입니다.
문손잡이에 마치 뗀석기가 붙어있는 것 같더군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구석기 시대로
타임슬립 하는 건가 기대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곳엔 중요 부위만 가린 역사책 그분들과는 달리 옷을 입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철옹성을 짓고서 요란한 수다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신인류

어라,
카페 손잡이에
뗀석기 두 덩이를 옮겨놓았네
구석기 박물관인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커피에 중독된 커피스들이
커피 사냥에 몰두하고 있었다
수다를 기록하며



김미희
시인·동화작가

내포신도시 완성 향한 첫걸음

**내포특위 2024년 첫 회의 개최
“꼼꼼한 사업 추진 검토 당부”**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이상근 위원장, 이하 내포특위)가 2월 1일 2024년 첫 회의를 열고,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내포특위는 먼저 회의에서 충남도 소관 업무 13건과 충남도교육청 소관 1건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그동안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꼼꼼한 사업 추진 검토를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은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며 “내포신도시를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현재 운행 중인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해봤으나 많이 미흡하다”며 “해당 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등을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과 고광철 위원(공주1)은 흥예공원과 관련해 “흥예공원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지며 인접한 용봉산에 녹지가 존재해 공원의 위치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진행 중인 흥예공원 명품화 사업 진행 시 공원을 도심 내로 이동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은 “첨단산단 입주업종 확대, 삽교역 주변 미니신도시 건설, 대학유치 사업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KBS 방송국 유치, 명지병원 개원, 충남대학교 분원 유치 등 필수 사업에 대해 관계 기관에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천특화시장 복구 지원 약속”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2월 1일 오전 서천특화시장을 방문해 피해 현장을 살피고 도의회 차원의 복구 방안 지원을 약속했다. 기경위 위원들은 “새로 짓는 특화시장이 충청남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주차장 등 제반시설 마련에 신경 써달라”며 “안전하고 발생에 대비한 화재 보험 등을 상인들에게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조례안

부실 공사 신고기간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천안6)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부실 공사 신고·접수 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신고·접수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르고자 발의됐다.

충남도와 직속기관, 공사·공단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부실공사 신고기간 규정 개선을 목표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교량, 터널, 도로, 상·하수도, 건축물 등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책임기간을 1년에서 10년까지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 조례상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신고 기한은 소극 행정 및 불합리한 상황 발생의 우려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부실 공사의 보수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 확대 지원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세무·회계 부문 지원을 추가하고, 판로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예방 및 구제 대책 등 소상공인 보호 사업의 시행 근거를 담았다.

이 외에도 기존 지원 사항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창업예정자 지원, 브랜드 개발, 마케팅 지원 등 각종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충남도의 책무를 더욱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 전체 사업장 중 약 80%가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 경기 회복이 충남 전체 경제 성장의 척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 소비트렌드 변화, 온라인 소비의 급격한 증가라는 현 상황에 맞게 충남도의 정책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농 대상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상향



충남도의회는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24일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농업인에게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해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농어촌지역 신규 유입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대상 융자한도액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충남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구성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청년농의 농·어촌지역 신규 유입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로자문회의 설치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효성 높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응규 의원(아산2)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원로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이를 정책 및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원로자문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구하였다.

충남은 노인인구비율이 21.3%로 17개 시·도 중 여섯 번째로 높으며,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생활 영위를 위한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원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이자 지역의 원로로서 더욱 실질적인 정책을 계획 및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충남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서 선도적이고 본이 되는 지자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2022년 특성화고 도입을 시작으로 일반계고 부분 도입을 거쳐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등 안전한 식재료 공급 및 급식 환경 개선 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고교학점제 선도·연구 학교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잘 보완해 학생들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선택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 방안 구축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 종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서식지 고유의 토지 및 기후환경, 주위의 다른 생물 종들과 적절히 조화돼 적응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낮선 외래생물의 유입은 기존의 생태계 균형을 깨뜨려 고유의 자생종을 포식하거나, 서식지를 탈취하여 생태계 균형을 붕괴시키고 생물다양성을 위협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키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은 생태계교란 생물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교란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시군,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생태계 균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방 의원은 “지난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을 벌족하여 연구활동을 진행한 결과, 충남에도 황소개구리 등 외래생물들로 생태계 균형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이 많은 것을 확인했다”며 “조례 개정이 충남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생물 퇴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강화 조례 추진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은 3030건으로, 2019년(428건)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소음관리로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추진 ▲재정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인철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은 도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이번 조례를 통해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륜자동차 소음의 피해와 올바른 운전 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도민들의 인식 개선에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 극복 앞장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감소 및 전공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특히 야간에는 소아응급실의 부족으로 중증 및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부족으로 새벽부터 병원에 출을 서서 대기하는 일명 ‘오픈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시기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의료자원의 실태조사 실시 및 필요한 지원사업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의 확충, 의료체계 및 응급체계의 구축,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지역인재 양성 위한 도립대 환경·정책개선 주문

기획경제위원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49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충남도립대학교, 인재개발원,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충남도립대학교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김명숙 위원장(청양)은 “지역기업들이 보조금을 지원받고 지역인재 채용을 주문해도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은 지역인재 양성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도립대 실습 장소 부족 등을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은 도립대 시설관리 인력 부족과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없이 학생들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스마트팜학과 정원이 급속으로 충원되어야 하며 올해 4월 예정된 일본 구마모토현 기술단기대학과의 국제교류에 있어 스마트팜학과도 함께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은 “학령 인구가 감소해 지방대들은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직 ‘도립대’라고 하면 지방대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윤 위원은 인재개발원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도민 교육 관련 “만족도 조사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 인기 있는 강좌는 심화 강좌를 개설하는 등 확대하고 만족도가 낮은 강좌는 보완·개선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은 충남테크노파크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2012년도부터 진행한 KOLAS(한국인정기구) 국제공인인증시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에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청소년서비스원 인건비 체불 해결 촉구

복지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349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여성가족정책관 및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은 “산업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여성인력 채용 추진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 식사하기, 친구 만들기, 일자리 순으로 요구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필요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에 대한 사업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데, 근무 환경, 인건비, 사업비 등에 좀 더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은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무리한 3개 기관 통합 추진에 이어 임금 체불까지 발생한 것은 공공기관의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빠른 해결을 주문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은 “어떤 사유로도 직원인건비가 체불되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직원 사기는 물론 도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미지급 인건비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은 여성가족정책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과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외국인을 고용할 만한 취업처 발굴과 불법‧편법 비자 취득 우려가 있어 유관기관 및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은 시·군 꿈드림센터의 인력 부족에 대해 “추가 인력 및 예산확보를 자체의 여건에 맡겨두는 여성가족부의 기조상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시적 성과로 도민 신뢰도 높여달라” 당부

건설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제34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통해 충남도 균형발전국 소관 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용국 위원(서산2)은 “공공기관 유치 시 어떤 기관을 유치하느냐가 중요하다. 혁신도시와 그 주변 도시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관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적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은 “온천산업과 예산군 보부상촌 사업 추진 시 두 사업을 연계해 구체화 및 활성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또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장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은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 동의안 회의 보고자료의 예산 증액 부분이 서로 맞지 않는데 집행부의 이런 부실한

자료작성은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은 베이밸리 충남 경제자유구역 연구용역 결과자료 요구를 하면서 “현재 국내 경제 자유구역이 인천으로 시작해 부산, 진해, 광양만권 등 총 9개가 조성·운영 중”이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 및 심의 대응에 철저히 기해 달라”고 밝혔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펼쳐 주고 당진 균형 발전을 위한 송악신도시 개발지원도 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은 “민간 역량과 자본을 활용한 ‘민관협동 지방소멸방지 대책’으로 충남이 선도하는 지방소멸 대응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기서 위원장(부여1)은 “공공기관 유치, 베이밸리 메가시티 선포식 등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 줌으로써 신뢰도를 회복해달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선수 이동 편의 및 접근성 강화 필요”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제349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체육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충청남도체육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안장현 위원(아산5)은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실제 지원받는 학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은 시·군 체육회 행사 시숙식과 관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선수와 학부모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숙 위원은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각종 대회에서 뛰어난 기록을 세운 선수들에 대한 처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 보고에서 오인환 위원(논산2)은 선수들이 대회 참가 시 이용하는 특장버스가 도내에 단 3대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오후에 열린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보고에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은 “기증·기탁된 유물들을 도민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보고에서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은 “10만 선비 양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유교 정신을 가진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보고에서 박정수 위원(천안9)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입주기업 관리와 아산 e스포츠 경기장 운영 등의 문제들이 지적되었다”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경쟁력 갖춘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강조

농수산해양위원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제34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4년 농림축산국에 대한 첫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주진하 위원(예산2)은 농림축산국장으로부터 정부양곡창고 보조금 지원 및 육성 겟도 추진 불가 사유를 보고받은 후 “양곡관리법 규정을 지키되 농민들이 추가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충남만의 양곡보관창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은 “미래 농업의 핵심 주체인 여성농업인들의 해외연수와 관련해 자부담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한 후 “고령농업인이 은퇴하고자 내놓은 농지를 지역의 청년농에게 우선하여 임대·매매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은 “농민들의 안정적인 수

입 보장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필요하니, 농지이양에 대해 개선해 달라”고 고령은퇴농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민수 위원은 “농업 기반의 가장 큰 문제는 용수공급과 배수에 있는데, 배수 문제로 매년 수해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은 “현재 공의형 계절근로자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측에서는 제도 도입에 부담이 있다”며 “숙식부터 인력관리 전반을 책임져야 하기에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은 “전국적인 스마트팜이 확산하다 보니 과잉 생산되는 농산물 소비가 우려가 된다”며 “일본 등 해외에 필요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존중하는 환경 조성으로 충남교육 발전시켜야”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49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은 “주요 업무계획을 매년 반복하기보다, 현안 사업과 최신 관심사를 담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업무계획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홍성현 위원(천안8)은 “지역 주민도 방과 후 학교의 각종 시설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옥 위원은 “충남과학고의 기숙사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며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히 수 있도록 즉각적인 환경개선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은 “충실한 늘봄학교 운영으로 학생들의 사회성과 인간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학부모에게는 일상생활에 안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밝혔다.

신순옥 위원은 “교육에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참여 촉진, 학습 경험 향상 등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의현 위원(서천1)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해 학업 성취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은 “교육지원청에서도 사립학교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관심을 두고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은 “교육 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수립에 반영해 달라”고 전하며 “모두가 행복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환경 조성으로 더 나은 충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마무리했다.

아이들과 설날 연휴에 가볼 만한

충남 겨울 여행지



1 아산 파라다이스 스파도고

#온천 휴양 #야외 온천 #카라반 숙박 #힐링 스파

주소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온천로 176
홈페이지 www.paradespa.co.kr



2 아산 장영실과학관

#과학체험 #생태공원 #곤충원 #건강테파파크

주소 충남 아산시 실록로 222
홈페이지 www.jyssm.co.kr



3 천안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사회재난체험 #자연재해체험 #소방시설체험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7-17
홈페이지 safe.cn119.go.kr



4 홍성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기후환경 체험 #기상관측 장비 체험 #기후 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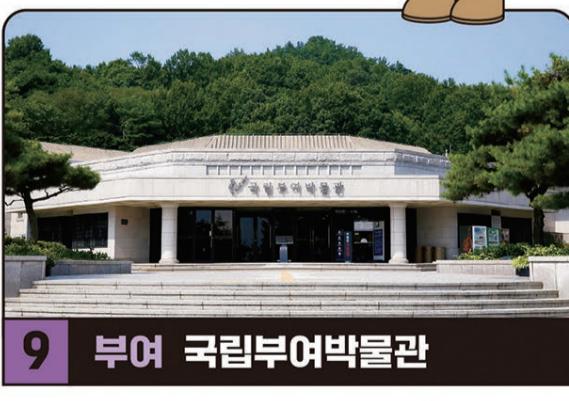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첨단산단로 15
홈페이지 blog.naver.com/seohaean_center



6 태안 안면도 쥬라기 박물관

#공룡 #화석 #AR/VR 체험 #쥬라기 월드

주소 충남 태안군 남면 곰섬로 37-20
홈페이지 www.anmyondojurassic.com



9 부여 국립부여박물관

#선사문화 #사비백제 #어린이박물관 #백제금동대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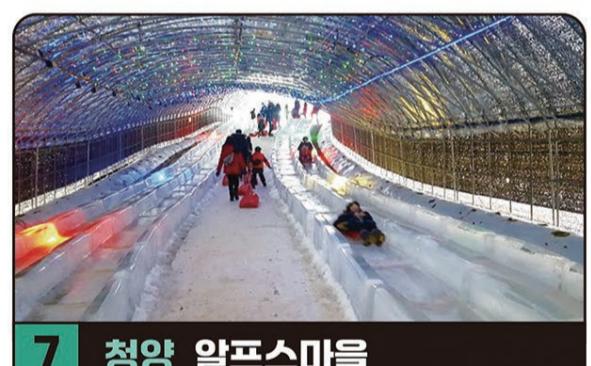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홈페이지 buyeo.museum.go.kr



5 예산 스플라스 리솜

#복합휴양 #49.5도 온천수 #워터파크 #리조트

주소 충남 예산군 덕산면 운천단지3로 45-7
홈페이지 www.resom.co.kr



7 청양 알프스마을

#눈썰매장 #얼음썰매 #짚라인 #눈 조각상 포토존

주소 충남 청양군 정산면 천장호길 223-35
홈페이지 m.alpsvill.com



8 보령 보령문화의전당

#60년대 보령 거리 #갯벌생태과학관 #문학관·서예관

주소 충남 보령시 대흥로 63
홈페이지 www.brcn.go.kr/culture



10 공주 국립공주박물관

#웅진백제 #어린이체험실 #무령왕릉 #디지털영상관

주소 충남 공주시 관광단지길 34
홈페이지 gongju.museum.go.kr